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4. 8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4 / 8



표지 사진·회원

이다음 생애 어느 산자락에 집을 짓
 게 되면, 꼭 연꽃을 파서 백련을 심
 고 연못가에 정자를 지어 연꽃 향기
 같은 삶을 누리고 싶다.

- 법정 -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연꽃 만나러 가서
처음 마음으로	09	뜻을 굳게 지녀 부지런히 수행하라
내 마음속 풍경	15	움켜진 손 활짝 펴면 희망이 된다
샌디에고 암탉	20	끝나지 않은 전쟁, 일본군 성노예
책 속의 책	24	간디 어록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26	아름다운 마무리 - 김순덕 어르신
깊은 사람 따라 흐른다	28	마음의 그린(Green) 읽기
천진난만	31	양천부지
사색의 뜰	32	봉정암
참교육 이야기	34	의료민영화는 재앙이다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38	여름을 두 권의 시집과 함께
한국불교전설	42	종이장수의 깨달음 <해남·진불암>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6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4년 8월 1일 발행 / 통권 234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연꽃 만나러 가서

글·법 정(法 頂)

지난번 태풍보다 앞서 내린 폭우로 다리가 또 떠내려갔다. 해마다 한두 차례씩 겪는 일이라 이제는 놀라거나 마음 쓸 일도 못 된다. 물이 빠질 때까지 밖에 나가지 말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

약속도 예정된 일도 없으니 길이 끊어져도 불안하거나 초조해 할 건 더기가 없다. 언젠가는 신문 원고 마감 때문에 허리께까지 불어난 개울물을 건너느라 혼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얽힘에서 벗어나 있으니 이 또한 할까분하다.

무슨 일이고 얽힌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유스럽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얽힘이 없어 거리낄 게 없는 것을 해탈이라 하던가.

쌀독에 아직 쌀이 남아 있고, 밭에 감자와 풋고추와 된장이 있어 굶주릴 염려 없고, 땀갈 또한 넉넉하니 걱정 근심이 없다. 별레도 끼지 않고 실하게 자라던 케일은 노루가 몇 차례 와서 깨끗이 먹어 치운 바람에 식단도 한결 간소해졌다.

예년 같으면 가을철에 뜯어먹을 채소를 조금 갈아야 하는데 올해에는 노루 덕분에 밭 갈고 씨 뿌리고 가꾸는 수고도 덜게 되었다. 농사일에 서투르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루 핑계로 일손이 한결 가벼워졌다.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을 책이 있고 마실 차가 있고, 또 어둠을 밝힐 기름과 초가 있으니 살아가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타오르는 지적 호기심이 있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와 인식에 귀를 기울인다.

최근에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일기초 日記抄>를 다시 읽으면서, 나는 쓰다 말다 한 산거일기山居日記를 다시 챙기게 되었다. 이 오두막에 들어와 지내면서는 영화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래서 타르코프스키가 만든 영화는 한 편도 접해 보지 못했다.

그에 대한 소개와 <일기초>를 읽으면서 삶의 열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일기는 1970년에서 1986년 생을 마치기 직전까지 기록된 것인데, 그에게 깊은 영향을 준 작가, 사상가들에 대한 흥미로운 성찰과 작품계획과 그 일지, 가족관계, 그 자신의 작업환경, 구소련의 영화 당국과의 갈등, 현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예리한 성찰 등을 담고 있다. 솔직하고 따뜻한 그의 인간성에 친화력을 느끼게 된다.

1977년 5월 28일자 일기에 그는

‘차다예프의 철학적 편지’를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온갖 유치한 호기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라면 정신을 빼앗기는 고질적인 경향, 화젯거리를 찾아다니며 그 결과로 다음날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다리면서 늘 들떠 있는 그 병적인 경향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와 행복이 아니라 실망과 역겨움만을 안게 될 것이다. 모든 소음, 외부에서 진행되는 온갖 메아리에 대해서 그대의 문을 굳게 단속하라. 그대가 충분한 결의를 지녔다면 경박한 문학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글로 씌어진 소음밖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소 긴 인용이지만 자칫 속물근성에 빠져들기 쉬운 오늘날 우리들 삶의 현실을 비추 주고 있는 내용이다.

어느 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다.

“인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는 50회 생일을 앞두고 이렇게 탄식한다.

“내일, 아니 오늘 두 시간만 지나면 나는 쉰 살이다. 밥소사, 내 인생이 이다지도 빨리 지나갔다니…”

우리가 산을 건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산은 그저 산일뿐이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열고 산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도 문득 산이 된다. 내가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 때에는 저만치서 산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윽하고 한가할 때는 내가 산을 본다.

대상과 그를 인식하는 주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될 때 갈등과 불화는 사라진다.

뜰가에 해바라기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두 송이 피어났다. 오, 해바라기네 하고 나는 탄성을 질렀다. 사

나운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곳곳하게 자라 자신의 속얼굴을 꽃으로 열어 보인 것이다.

탐욕스런 사람들에 의해 날로 더럽혀지고 허물어져 가는 이 지구촌에 철 따라 피어나는 꽃이 없다면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할 것인가. 꽃이 피어나는 이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오늘의 인간들이 겸허하게 맑은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덜 훼손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다.

지난 8월 중순 연꽃을 만나기 위해 천릿길을, 왕복 2천 리 길을 다녀온 일이 있다.

머나먼 길인데도 그만한 가치가 있고도 남았다. 10만 평이나 되는 드넓은 저수지에 백련白蓮이 가득 피어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다음 날로 부랴부랴 찾아 나섰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복룡저수지. 끝이 가물거리리는 33만여 제곱미터 넓이에 백련이 뽀뽀히 들어차 있었다. 실로 장관이었다. 전주

덕진 연못은 흥련뿐인데 이곳은 백련 일색이었다. 흥련은 흔하지만 백련은 귀하다. 그리고 꽃의 모습이 백련 쪽이 훨씬 격이 있다.

어째서 이런 세계적인 규모의 백련이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우리 일행을 길잡이 해준 바로 이웃면에 사는 몽평요의 주인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단다.

궁벽한 시골에서는 식용으로 연뿌리를 캐서 이용했을 뿐 연꽃의 아름다움에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무안군에서 예산을 들여 그 진입로와 조정시설 등을 내후년까지 완비할 거라고 하면서, 한창 도로를 넓히는 중이었다.

해마다 연꽃이 피어나는 7, 8월이 되면 다녀가기로 마음먹고 발길을 돌렸다. 돌아오는 길 광주시에 매곡동 선임이네 집에 백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선 걸음에 찾아갔었다. 연못에 피어 있는 백련은 실로 황홀했다. 앞서 본 것보다 꽃도 훨씬 크고 향기도 더욱 맑았다. 너울너울한 잎

과 정갈한 꽃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바로 그 꽃에 그 잎이 있다.

여러 꽃향기 중에서도 영혼에까지 스며드는 듯한 신비스런 향기는 단연 연꽃일 거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런 연못가에 조출하게 정자를 지어 아침저녁으로 연꽃을 가까이서 느끼고 지켜보면서 은은한 꽃향기로 숨결을 고를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구나 싶었다.

중국 북송北宋시대의 학자 주무숙周茂叔은 그의 <애련설愛蓮說>에서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오직 연꽃을 사랑함은, 진흙 속에서 났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오염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이 비어 사심이 없고, 가지가 뻗지 않아 흔들림이 없다. 그 그윽한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그의 높은 품격은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은 꽃 가운데 군자라 한다.”

연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 뿌리는 식용과 약으로 널리 쓰이고, 잎

은 음식을 싸서 찌는 데 쓰이며, 그 누렸었다.

열매인 연실은 신선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혹은 약재로 예전부터 쓰였다. 그리고 꽃과 향기는 나같이 철이 덜 든 사람을 천리 밖에서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다.

한여름 더위를 모르고 지내다가 연꽃 만나러 갔던 그날은 더위 속에 땀끼나 흘렸었다. 그러나 정든 사람을 만나고 온 듯한 그런 두근거림과 감회를 느끼면서 살아 있는 기쁨을

이다음 생애에 어느 산자락에 집을 짓게 되면, 꼭 연못을 파서 백련을 심고 연못가에 정자를 지어 연꽃 향기 같은 삶을 누리고 싶다. 아,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네!
(1995)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중에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참배객 유의사항

사찰은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불자들의 기도처입니다.

최근 더위와 주말 나들이로 많은 분이 길상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 신도님과 참배객께서는 사찰 방문 시 유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어 수행은 물론 마음의 쉼터로서 모든 불자가 자랑스러워할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치게 노출된 옷(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소매 없는 상의 등)이나 슬리퍼를 신고 경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으로 애완동물, 자가용, 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 도량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러운 행동, 지나친 애정표현을 자제해 주십시오.

뜻을 굳게 지녀 부지런히 수행하라

글 • 덕 운(德耘)

우리는 금생에 태어나서 매일 어떤 일이든지 하며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익혀갑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서는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기를 끝없이 되풀이하면서, 매 순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익혀 왔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처럼 익혀왔고, 지금도 습관처럼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검생래로 익혀온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업을 익혀 왔기에 지금의 나는 자유롭지 못한 삶, 고통의 삶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貪欲)과 성내는

마음(瞋心)과 어리석은 마음(痴心) 즉 삼독심을 알게 모르게 익혀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즉 욕심은 색욕(色欲), 식욕(食欲), 수면욕(睡眠欲), 재욕(財欲), 명예욕(名譽欲) 등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색욕과 식욕과 수면욕이 모든 욕심의 근본이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무시 이래로 익혀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행(行)해지게 됩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고, 이성(異性)이 있으면 함께 있고 싶어 하며, 졸리면 잠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원초적 욕망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욕망의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는 등의 '싶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습관처럼 원하는 것이 행위(行爲)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사윤회의 세계, 곧 상대적인 세계에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뜻과는 반대로 원치 않는 싫은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을 내게 되고, 화를 참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道)를 이루는 방해요소인 세 가지 독소, 곧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심이 만들어 내는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과학에서는 1차원에서 4차원까지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차원의 세계는 무엇인가? 1차원의 세계는 일직선 상에서 앞으로만 갈 줄 알았지 옆으로는 갈 줄 모르는 선(線)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2차원의 세계는 옆도 볼 줄 아는 평면의 세계이며, 3차원의 세계가 입방형으로 앞과 옆, 아래와 위를 모두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떼어놓고 공간만 바라본 세계인데, 여기서 시간을 합치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일치되는 4차원의 세계가 연결됩니다. 이 세계에 들어서면 모든 욕심이 없어지고, 생사를 벗어나 해탈의 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는 상대의 세계, 곧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욕심의 불안정한 해소로 인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탐욕심으로 말미암아 삼악도(三惡道)라 불리는 지옥, 아귀, 축생의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극락(極樂)과 삼악도(三惡道)도 다 마음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능엄경 제6권과 제7권에는 18대 지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

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빙지옥(寒氷地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한빙지옥(寒氷地獄:얼음지옥)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한빙지옥은 중생의 탐욕심으로 생겨나느니라. 탐욕심을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잡아당기는 마음이니라.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것도 '잡아당겨 내가 먹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잡아당겨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도 잡아당겨 나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음지옥이 생겨나는 것이다. 마치 더운 여름철에 입을 옴려 공기를 훑 들이켜면 입 끝에 찬 기운이 생겨나는 것과 같나니, 모든 것을 탐하여 당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빙지옥에 들어가 갇히게 되느니라.”

이 말대로 탐욕심으로 한평생 잡아당기기만 하고 풀어 놓을 줄 모르면 얼음지옥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

는 것입니다. 이 얼음지옥이란 것이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능력이자 만든 것이 아니라, 중생의 탐욕심이 얼음지옥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업으로 인해 갇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산지옥(刀山地獄:칼산지옥)에 대한 경전 내용입니다.

“도산지옥이 있다는데, 그 지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맞지 않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게 된다. 성을 내는 순간 칼끝 같은 성질이 비쪽 솟아나게 되고, 성내는 일이 잦아지면 무수히 많은 칼로 만들어진 칼산지옥이 생겨나느니라.”

이와 같이 실로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칼끝 같은 날카로운 것이 튀어 나가 남을 찌르고 나 자신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을 내는 것이 칼산지옥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죽고 나면 그곳에 떨어져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지다 보면 무명(無明), 곧 어둠이 마음을 덮어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면 마음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끝없는 생사윤회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른 지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 석음의 굴레를 근원적으로 벗어나려는 자기수행을 철저히 해나가야 합니다.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생겁(多生劫) 동안 익혀 온 탐진치 삼독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흔들 리면 탐진치 삼독이 마치 하루거리 학질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방만해지고 나태해질 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한없이 나태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심이 열어지고 정신이 나태해질

때 나름의 방편을 써서 신심을 다시 일으키고 수행을 더 하여 지혜의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수행인은 모름지기 대나무와 같은 깨끗한 절개를 지켜가야 합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디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부러지지도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나 초지일관(初志一貫) 하는 태도를 대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수행하는 것이 보기에는 한가롭고 쉬워 보이지만, 하고 싶다고 하여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과거 전생 인연이 있어야만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굳은 신심이 뒤따라야 합니다. 처음 발심하였을 때 견성성불(見性成佛) 하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을 때 때로 상기해내고 자신을 꾸짖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책해야 합니다. 또한 인과(因果)의 법칙을 철저히 믿고, 항상 바른 신심 속에서 불법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

니다. 지금의 내가 손 한번 들고 발 한번 놓는 일이 복 짓는 일이 아니면 허물을 짓는 일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한 생각을 믿는다면 어찌 함부로 행동 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곧바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에 솔직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듣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깨닫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사성언(四聖言), 즉

네 가지 성스러운 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본의 아니게 거짓 말을 하고는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자기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울러 나의 허물에 대해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냉철한 이성을 갖추어야 하고, 잘못을 알았으면 고집을 꺾고 곧바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르게 고쳐나가면, 더 큰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잘못된 줄 알았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허물을 뉘우쳤으면 마음을 항상 고르고 부드럽게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일러 보조국사 지눌 스님께서는 ‘지비천선(知非遷善) 개회조유(改悔調柔)’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릇됨을 알았거든 선한 대로 옮겨서 고치고 뉘우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자기의 허물을 돌이켜 뉘우치며 끊임없이 수행하고, 모나고 날카로운 부분들을 갈고 닦아서 원만한 인격체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관(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수행의 문이 더욱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입명(安心立命)하게 되고 머지않아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산시(寒山詩)에 나오는 시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可貴天然物(가귀천연물)이여
獨一無伴侶(독일무반려)로다.
覓他不可見(역타불가견)이고
出入無門戶(출입무문호)로다.
促之在方寸(착지재방촌)이고
延之一切處(연지일체처)네
汝若不信受(여약불신수)면
相逢不相遇(상봉불상우)로다.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도다. 이 천연의 물건이여
오직 하나로서 짝이 없으라.
그를 찾아도 볼 수가 없고
나오고 들어가는 그 문도 없네.
움켜잡으면 방촌에 들고
펼쳐 놓으면 어디나 있네.
만일 네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서로 만나도 알지 못하리.

생명이 있으면 누구나 있는 이 물건,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는 이 물건, 이 물건을 깨달아야 삼계에 우뚝 선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物件)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나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 속에서 수행과 행복을 찾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항상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불기 2558년 6월 초하루

(2014년 6월 27일)

움켜쥔 손 활짝 펴면 희망이 된다

글 • 이경숙(수필가)

세계가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아사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이다. 또 이 마을의 모든 부가운데 6명이 59%를 가졌고 그들은 모두 미국 사람이다. 또 74명이 39%를 차지하고 겨우 2%만 20명이 나눠 가졌다. 80명이 20%를 나누어 쓰고 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하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다.

〈세계가 만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이다. 이 마을의 모든 부가

데 6명이 59%를 가졌는데 20명이 영양실조이고 1명은 아사 직전이다. 만일 이들이 자신의 공간을 연다면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도 없을 테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잔뜩 움켜쥐고도 베풀지 않아 세상 어느 구석에서는 경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하고 돈이 없어 병든 몸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가진 자들이 움켜쥔 손을 활짝 펴 조금씩만 내놓는다면? 혼자 꿈같은 희망을 가졌다가 부질없지, 포기했다가, 세금 건듯 강제적으로라도 징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설정도 했다가…….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 배고픈 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가문이 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주인공들은 300년 동안이나 부를 이어 온 경주 최부잣집. 최 부잣집 이야기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책으로 읽으니 그 감동에 그냥도 배가 부르다.

흥년이 들 때면 최 부잣집의 공간 문은 어김없이 열렸다. 마당에는 배고픈 이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섰고 최 부잣집 마님은 그들의 배를 채워줬으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손에 곡식을 쥐어줬다. 하지만 이들의 공간은 다음 해면 다시 채워지곤 했다. 그 비밀을 파헤친다.

최 부잣집을 처음 일으켜 세운 이는 정무공 최진립(1568년~1636년). 세 살 때 어머니를 잃은 그는 열 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여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최진립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한 바가 있었다. ‘부모에게 배우지 못해 예의가 없다는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과연 그는 누가 봐도 예의가 발랐으며 성품 또한 반듯했다. 농사만 짓던

최진립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경주까지 진입한 몇 백 명의 왜군들을 바람을 이용해 모두 죽인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왜군들은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경주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때 최진립은 의병을 모아 왜군을 물리치고 경주성을 되찾는다. 왜군들의 침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무관이 된 최진립의 활동 역시 크게 빛을 낸다.

최진립이 죽고 그의 아들 최동량이 가문을 이어받았지만,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가 3년 동안이나 아버지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집을 떠난 하인들이 많았고 논밭의 상태는 형편없어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땅을 개간할 것을 결심하고 관아를 찾아가 농사에 필요한 황소와 농기구를 지원받는다. 덕분에 수백 마지기의 논과 밭을 개간할 수 있었다. 최동량은 논밭을 개간하는데 힘쓴 이들에

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바로 병작반수제. 자신의 소유에서 나온 소출의 반만 자신이 받고 나머지는 소작인이 갖는 것이다. 땅을 개간하는데 고생한 이들의 공을 혼자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이렇게 하여 다시 한 번 가문의 영광을 드러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인들은 땅과 같은 존재다. 그들이 입고 먹는 것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혹시라도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심하게 꾸짖거나 매질을 해댄다면 그들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날보다 일이 많은 날은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칭찬도 아끼지 말거라. 또 가족이 없는 하인이 아플 때는 정성껏 간호해줘라. 혹시 부모나 자식이 있는 하인이 병들어 죽거든 남은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양식을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인들이 감동을 받아 더 열심히

일하고 주인과 하인 모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내 것을 아껴 가난한 이들을 도와라

남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그들은 근검절약하는 생활로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혹여 자식들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이렇게 가르쳤다. 말하자면 경제교육인 셈이다.

“내 집에 확실하게 들어올 재물을 헤아려 본 다음 그 범위 안에서 꼭 써야 할 것을 결정해라. 들어오지도 않을 재물을 미리 생각하고 마구 쓰는 건 빚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해에 지낼 제사를 미리 헤아려 보아라. 가족의 수도 계산해서 한 해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야 할 지 계획해야 한다. 제사는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이니 정성껏 지내는 것이 도리지만 음식을 차고 넘치게 차릴 필요는 없다.”

“물건을 살 때는 나라면 얼마를 받겠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물건을

팔 때는 나라면 얼마를 주고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적당한 값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적당한 값을 잘 모를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많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값이 바로 그 물건값이다.”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안 살림살이를 팔아서 끼니를 때워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그들이 내놓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해서 안 된다. 아픈 사람이 약값에 쓰려고 소중한 땅문서를 내놓은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값을 치러서는 안 된다.” 과연 최 부잣집 자손다운 가르침이다.

이들이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 최진립의 아내가 입었던 솜옷은 물에 담가 놓으면 이불 한 채 정도 크기로 부풀어 올랐다. 구멍 난 옷을 하도 기워 입어서 그런 것이다. 가문을 이어받은 최진립의 손자 최국선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반문한다.

“쌀 한 가마니로 비단옷을 해 입는 것이 더 좋은 일이나, 굶주린 수십 명의 끼니를 때우는 것이 더 좋은 일이나?”

시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국선의 공간에서 나온 곡식을 먹은 이들은 경주뿐 아니라 포항, 영천, 밀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춘궁기인 3월과 4월에는 한 달에 1백 석씩 쌀을 나눠 주었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빛진 자들에게 희망을

일생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서도 최국선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는지 늘 성찰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결단을 내린다. 가난한 자들이 맡고 간 땅문서나 집문서, 돈문서들을 모두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깜짝 놀라는 아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통 큰 나눔을 실천한 최국

선이지만 그는 평생 은수저 한 벌 쓰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수백 석의 곡식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것이다. 최씨 가문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 부잣집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 은혜를 자손대대로 잊지 않았고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땐 목숨을 걸고 최 부잣집을 지켜내기도 했다.

부자가 되는 일은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움켜쥔 손을 활짝 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진립과 그의 후손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사람들이다. 어려운 때, 가진 자들의 나눔과 베풀

은 세상에 퍼를 돌게 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

300년 만석꾼 집안의 비밀 열다섯 가지

1. 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만을 갖는다. 2. 한국적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를 실천한다. 3. 함께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 4. 군림하지 않고 경영하는 중간 관리자를 둔다. 5. 양입위출, 들어올 것을 헤아려 나갈 것을 정한다. 6.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않고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한다. 7. 때를 가려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다. 8.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지 않는다. 9. 청백리 정신에 바탕을 둔 근검절약 정신을 실천한다. 10. 이 루기 힘든 일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한다. 11.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하고 항상 후하게 대접한다. 12. 자신을 낮춰 상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한다. 13. 덕을 베풀고 몸으로 실천한다. 14. 2등을 위해 1등만큼 노력한다. 15.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버린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 :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를 의미한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 일본군 성노예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일본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갔고, 또 꼬임으로 데려 갔다는 그들의 양심적인 말을 죽기 전에 듣고 싶어요.” 나이 탓인지 할머니들은 물질적인 보상도 이제는 포기해버렸다. 일본 정부가 최소한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한마디 “잘못했다. 사과한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내기 된 분들에게 말해야 한다며 외치고 있다.

사람의 기본 권리를 유린당한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밝히지도 못하고 거의 떠나버린 지금. 일본이 동아시아를 침략한 시대(1930년대)에 가난한 집에 사춘기로 자라던 죄박에 없다. 각 가정의 귀한 딸이고 자식들이었다. 성노예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자

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열심히 뛰어다니는 한국과 세계의 인권옹호단체 봉사자들을 향해 나는 깊은 존경을 표한다.

송신도(92세, 충청남도 대덕 출신)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로 살다 다시 일본인에게 결혼하는 줄 알고 왔다 버림받았다. 자살하려는데 구해준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소개하여 다시 살았다. 용감한 그녀는 1993년 4월 5일부터 일본 정부에 정식 사과를 위안부에게 하라며 싸웠지만, 재판에 졌다. 1999년 10월 1일, 외국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여인이 스스로 일본 귀신이 되었다며 송장 같은 몸이 되어 폐잔병처럼 지금은 누워있다. 텔레비

전에 영상으로 비추어진 지쳐있는 그 모습…….

19살 때 만주로 끌려간 이수단 할머니(93세)는 중국 양로원에서 양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정신분열증 치료약을 먹고 있다. 말도 못하는 억울한 밤이 얼마나 지났을까. 고향 평안북도(속천)를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리움과 서러움으로 눈시울 적시는 주름진 얼굴, 마음이 아파 차마 볼 수 없다. 이용녀 할머니는 1995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살며 일본군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앞장섰으나, 87세로 별세했다. 그도 열여섯 나이에 끌려가 미얀마 양곤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었다. 고맙게도 아직 건강히 살아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생생한 증언을 용감하게 들려주는 김복동 할머니(86세)는 한을 품고 가신 분들에게 산 역사의 증인이고 우리들의 희망이다.

동물보다 못했던 성노예의 감옥 생활. 날마다 험박으로 여인의 가리고

싶은 신체부위를 여러 군인들에 의하여 마구 짓밟혔다. 못 달아나게 신발까지 빼앗겼다는 소녀들, 일본군과 업자에 의해 운영된 강간수용소(위안소)에서 도망치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을까. 공부하고 싶은 희망과 돈을 벌어서 효도하려던 착한 마음이 일본인들에게 속았으니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이십 만 명이 넘는 한국과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소녀들의 울분한 명령의 내이어. 또 부모나 가족들은 행방불명이 된 딸과 언니, 누나를 찾으려고 서러운 눈물 얼마나 메말랐을까.

2007년 일본 중군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했던 미국연방하원의원 마이클 혼다는 일본 정부는 성숙한 지도자로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혼다 의원은 북가주 출신으로 교육자였다. 몸에 흐르는 피보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을 말하는 존경받는 일본계 미국인 3세 하원의원이다. 2009년 혼다 의원이 한국을 방문하여 나눔의 집에

서 만난 강일출 할머니는 “피해를 입은 지 64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끄덕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으면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본 정부가 껄뻐해요.”라며 울분을 토해 내자 그는 “할머니들을 존경한다. 제 발 싸움의 힘을 잃지 마세요.”라고 위로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공원에 이어 로스앤젤러스의 글렌데일 시립 도서관 정원에도 위안부를 기념하는 조각이 금년에 세워진 사건은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미국 시민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또 이런 일이 역사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뉴저지 주 고든 존슨 (Gordon Johnson)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2013년 3월 21일 뉴저지 주 하원의원회 제 159호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일본정부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후손들에게 진실한 역사교육을 시키라며 계속 촉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네덜란드, 대만, 필리핀, 일본 지방 의회까지 총 55건에 달한다고 한다.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도 맥두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했다.

다행히 일본 주요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위안부를 연구하고 있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도 1938년 3월 당시 일본정부에서 위안부를 모집할 사람들을 관리했고 위안소는 군대의 전용시설이었다는 서류를 발견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1944년 일본군 심문보고서에 그런 자료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1946년 도쿄 전범 재판에서도 강제 연행했다는 여러 문건들이 나왔다. 또한, 중일전쟁 당시 중국의 산시성에서 군의 명령 따라 강제로 끌려 온 처녀들을 성노예로 삼았던 과거를 일본군인 마쓰모토 마사요시(현재 91세, 일본군 위생병 출신)도 솔직한 체험담을 고백하며 사죄했다(한국 텔레비전(KBS) 판노라마 2013년 8월 15일 방송).

1993년 일본정부의 고노 요헤이 관

방 장관도 전쟁기간 중 위안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무라이마 도미이치 전 총리도 국가에서 행한 일을 이제 와서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일본이 존엄성을 가진 나라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여자들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몇몇이 말할 수 없던 세상이었는데, 강압적으로 기계처럼 하루에 수십 명을 기다려야 하는 지옥생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계급에 따라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던 일본 군인들도 과연 행복하게만 살아왔을까. 아니면 그들의 양심도 할머니들의 명에 처럼 지금은 지하에서 혼이 되어 후회하고 있을까.

비겁하게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치인들은 온갖 변명으로 불행한 소녀들을 매춘부와 비교하다니! 억울한 할머니들을 두 번 세 번 죽이지 말았으면 한다. 독일의 메르켈 여총리가 나치범죄에 영원한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반성하듯이, 일본은 희생된 녀들에 영원히 사과해야 하리라.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심성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다립니다. 또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의견도 겸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궁극한 점이 있거나,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거나,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겸허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을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소식지가 몇 차례 반송되어 연락이 안 될 경우 소식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지나 소식지 수신 여부에 변경사항이 있으시다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 이메일 : clean94@daum.net | • 전화 : 02.741-4696

간디 어록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밧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 무소유 중에서



간디가 영국에 가서 준비된 원고 없이 2시간가량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구절도 잘못된 이야기 없이 명연설하자 사람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원고 한 장 없이 이렇게 흡입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자 간디를 잘 아는 주변 사람이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니깐요.”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영국 식민지 기간(1859~1948) 중 대부분

을 영국으로부터의 인도 독립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인도의 화폐인 루피의 초상화에도 그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1869년 10월 2일 서부의 포르반다르에서 작은 소공국인 포르반다르의 총리를 지냈던 아버지 카람찬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종교는 부모의 영향으로 힌두교입니다. 13세가 되던 해에 부모의 뜻에 따라 카스트르바이와 결혼했고 18세 때 런던에서 법률을 배우고, 1891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귀국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였습니다. 1893

년의 남아프리카 여행에서 백인에게 박해받던 인도인들을 보고 정치운동가로 변신한 그는 나탈 지방의 회와 영국 정부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하고 수백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도인 차별법의 입법을 막는 것에는 실패하였으나 나탈·영국·인도에까지 나탈 인도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홍보하는 데 성공하였고, 1915년 귀국할 때까지 인도인의 지위와 인간적인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후 불살생, 무소유, 무집착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바탕 위에 사차그라하(satyagraha, 진리 파지) 운동, 이슈람 공동체 운동 등을 전개하였고,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의 목적으로 납세 거부, 취업 거부, 상품 불매 등을 통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인도 카스트의 최하층인 하리잔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진력하였습니다. 1922년 12월 인도의 문호 타고르로부터 ‘마하트마(Mahatma, 위대한 영혼)’라고 칭송한 시를 받은 뒤로 ‘마하트마 간디’

라 불려 온 그는 인도인뿐 아니라 세계인의 가슴속에 위대한 영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1930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었으며,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4번이나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자의 물망에 올랐으나 끝내 수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947년 7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융화를 위해 활동하던 중 1948년 1월 반이슬람 극우파의 한 청년이 쏜 흉탄에 안타깝게 쓰러졌습니다.

어떤 이에게 진리인 것이 다른 이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진리를 찾는 자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꾸준히,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면
서로 다른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한 나무의 수많은 나뭇잎들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 마하트마 간디 어록 中

아름다운 마무리

8월의 결연 대상자 - 김순덕 어르신

다음 '희망해 모금'을 통해 인터넷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전해드리려고 7월 초 신영화 어르신을 뵈러 갔습니다. 어르신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 번 감사인사를 표하셨습니다. 1,858명의 네티즌이 일면식도 없는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신 덕분에 사무국 활동가로서 인사를 받아 송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도움을 받아야 할 분이 있다며,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김순덕 어르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새로운 나눔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순덕 어르신(81세)은 기초수급자로 월곡동에서 혼자 사십니다. 두 번의 결혼을 통해 가슴으로 낳은 5명의 자녀와 직접 품에서 길러낸 2명의 자녀가 있지만, 현재 아무런 보

살핌도 받지 못하십니다. 첫 결혼에서 낳은 따님은 환갑이 넘은 연세에 어렵게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두 번째 결혼으로 낳은 차남은 중국에서 장사하다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다섯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도 품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갖은 고생을 다 해 키웠건만 내가 아프니 누구도 날 돌보지 않는다'며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지금 어르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930여만원의 빚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의 전세대출금 600만원과 이자를 내지 못해 쌓인 연체금 280여만원, 동네 친구분으로부터 급하게 빌려 쓴 생활비가 50만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전세대출금과 어르신의 전 재산 300만원을 합친 900만원으로 전세를 얻

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면서 전세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어르신은 사용처가 없어진 은행 빚을 갚는 대신에 한 달 월세라도 벌여보자는 마음에 계를 드십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집니다. 계주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고, 충격에 빠져 경황이 없는 계주는 여러 사람의 께돈을 모두 남편의 치료비로 써 버리고, 결국 남편은 사망합니다. 이때문에 계주의 집안은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600만원의 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김순덕 어르신은 계주를 닦하기보다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김순덕 어르신은 은행 빚보다 동네 분으로부터 빌린 50만원을

더 다급하게 생각하십니다. “은행 빚이야 내가 죽으면 정부가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지만, 50만원만큼은 살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한다”며 하소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숨이 차고 손이 떨리는 모습을 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김순덕 어르신의 은행 빚에 대해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희망해 모금'을 통해서도 생활 빛 50만원과 6개월간의 월세 120만원을 합한 총 170만원을 우선 모으고자 합니다. 어르신은 기억력이 연세에 비해 좋으신 편이어서 소설책을 읽으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부디 50만원이라도 모여 김순덕 어르신께서 편안히 숨을 쉬면서 책을 읽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거리캠페인 일정 : 8월 15일(금), 8월 31일(일) 길상사 경내
- 다음 희망해 모금 및 서명 방법 : 포털 사이트 '다음' - 희망해 - 맑고 향기롭게 검색해서 서명 또는 모금

마음의 그린(Green) 읽기

글 • 강인철

온 힘을 다해 공을 날리고 ‘굿~샷!’을 외쳤다. 하지만 하늘로 솟은 희망은 그린을 자주 벗어났고 그래서 공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모습이 내 처지임에도 아내 차례가 되면 혼수를 하고 싶어 담담하게 지켜보지 못하고 한 마디씩 거든다.

해외에 나왔다는 해방감 때문일까 국내에서와 달리 아내도 이전 가만있지 않을 기세다. 그럴 때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저런 사연 끝에 아내와 마지막 꿈의 그린 18번홀 ‘퍼팅 존’에 섰다. 마치 US 오픈골프 결승라인에 입성한 개선장군처럼...

밴쿠버의 둘째네 집에서 지낸 여름 한 달간은 짧고도 긴 여정이었다. 2년 만에 만난 손주와 동심으로 돌아

가 공원에서 볼을 차거나 놀 때는 하루해가 금방이었으나 드라이브를 하자거나 다운타운에 나가보지 않았느냐며 차(車)타기를 권할 때는 같은 하루라도 길었다. 그래서 결국은 필드에 나갈 수밖에 없는 날들이 차츰 잦아졌다.

지난봄에 잠시 귀국했던 녀석이 한사코 동네 골프연습장에 나가 계속 스윙감각이라도 익히기를 권했던 이 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 동네 집에서 불과 이십 여분 거리에 골프장이 있고 비용도 2~3만원인데다 주중에는 예약 없이도 바로 라운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다.

퍼팅 존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시간들을 많이 끈다. 웬만하면 한두

번에 끝내고 싶지만 공은 홀 컵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가다 서기를 하며 내 뜻과는 영 다르게 흐른다.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술술 좀 들어가 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아내의 퍼팅 자세는 너무나 신중하여 답답하기까지 하다. 기다리다 못해 한마디 또 건네 보았다. 미동도 하지 않던 아내가 겨우 입을 연다. “그린(Green)을 읽어야지요.”

“.....”

TV에서 가끔 보았던 유명 골퍼들의 그린 읽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아름아름 스친다. 용단을 깔아 놓은 듯 결 고운 잔디지만 막상 올라서면 마치 서로 부대끼며 미운 정 고운 정을 역어 가는 우리 동네 이웃들의 순탄치 않은 일상처럼 울퉁불퉁한 게 멀리서 보기와는 영 다르다. 게다가 보일 듯 말 듯 오르고 내림의 경사면이 험갈리는 곳에서는 마땅치 않기가 더욱 이만 저만 아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 턱밑에서 한번쯤은 꼭 난코스를 만나 진땀을 흘리듯 홀 컵 가까이에 공이 붙었다

고 망심했다가는 어떤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조차 그린을 살피고 읽느라 전후좌우를 돌며 그렇게도 신중을 다하고 있었던가 보다. 108mm의 홀(hole)을 향해 108번뇌라도 삭히려는 듯 숨 막힐 것 같은 모습들이 부담스러웠던 나는 그래서 한 동안 골프와 인연을 멀리 했었다.

모든 그린이 저마다 다르듯 사람의 마음 또한 만인만색 일 것이다. 그런데 부부기간인 아내만은 나와 같은 생각이겠거니 지레 단정 지으며 상대를 읽으려는 노력도 별로 해보지 않은 채 지금껏 너무 쉽게 살아온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생각하면 아내와는 단지 부부의 연(緣)을 맺었을 뿐, 태어나고 자람은 물론 어느 것 하나같은 것이 없지 않은가. 때 늦은 감이지만 깊이 되새겨 볼 일이다.

조금 전 필드에서도 아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달리 샷을 날렸고 그래서 건넌 한마디로 또 불편을 자초하기도 했다. 내 탄엔 늘 그러했듯이 도와주겠다는 온정(?)으로

한마디 거들었을 뿐인데, 아마도 나는 “이럴 바엔 무언가 하러 동행했을까” 하고 볼이 메었을지도 모를 일이지 싶다.

골프에서는 잔디의 결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승자가 되듯, 우리네 삶은 속 깊은 마음의 그린을 잘 살필 줄 아는 게 세상살이의 기본일 것 같다. 형제와 아이들의 마음결은 어느 방향이며 친구와 이웃의 그린은 경사면이 어떤 상태일까?

때로는 자기 혼자만의 생활 속 병커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주위를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모두가 소홀함 없이 잘 챙겨야 할 귀한 인연들이 아니던가.

그 동안 일심동체(一心同體)라는 미명하에 마음읽기를 게을리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아내에게 이제부터라도 ‘그린 읽기’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그린읽기나 마음읽기나 그게 다 한통속 이니까.

앙천부지

글 • 맑은 만남(淸逢)



仰天俯地
 하늘을 올려보고 땅을 굽어볼. 곧 하늘이 천국
 (우연) 하늘은 이르면.

강인철님은 일본 열도에서 배낭여행을 시작하여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5대양 6대주 75개국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산과 사람과 문화를 만나며 땅과 하늘의 사연들을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국악사랑 '휘모리'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과 문화 자산을 시민의 힘으로 확보하여 영구히 보존하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입니다.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 8월, 9월 숲기행 안내

8월 15일(금)에는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수영은 법정스님의 고향 마을이며, 1597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역사적인 곳으로 진도가 보이는 바닷가 포구입니다.

9월 숲기행은 추석 연휴로 인하여 둘째 토요일(13일) 경남 통영 미래사와 생태섬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통영 미래사는 법정스님이 은사 효봉스님을 모시고 행자 시절을 보낸 사찰입니다. 9월 참가는 8월 18일(월)부터 사무국으로 전화 접수 받습니다.

• 참가비 : 회원 35,000원 / 비회원 40,000원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봉정암

글 • 문애란(광주모임 회원)

佛의 정수
 法의 정수
 봉황의 정수
 굽이굽이 골짜기마다 경전이 펼쳐
 있네
 8만4천 범문을
 하근기부터 상근기에 이르기 까지
 감싸주고 풀어주며
 걸음걸음 설명하고 이해시키네.

온갖 객진번뇌 탐 진 치를
 백번을 씻기고 비추어서
 찌들은 때 말갱게 될 때까지
 온 산천이 하나 되어 허상을 벗겨
 주니
 山川草木이 모두가 부처님이네.

다람쥐 부처님의 맑은 눈매

중생들의 어리석음 일깨워주고
 맑고 밝아 그 실상 그대로 드러나니
 웅졸한 마음 감출 길 없네.
 티끌만큼의 먼지도 용납하지 않는
 순수함 그 자체로
 본래 청정무구한 실상을 보는구나.

우리네 인생사
 만개의 골짜기를 지나고
 천개의 바위를 넘어야 하듯
 굽이굽이 시름 날리며
 가쁜 숨 몰아쉬고 깔딱 고개 넘으니
 드디어 화엄의 세계가 펼쳐지네.

발아래 보이는 것은 흰 구름뿐
 신비로운 천상의세계
 아! 가벼움이여
 허공으로 바람으로

온갖 번뇌 망상 다 날려버리고
 한 점 흰 구름으로 자유로이 살아
 가리.

- 봉정암을 다녀와서



전화 말벗 봉사자 모집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결식 이웃 밀반찬 지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일주일
 에 한 번 이상 가정에서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
 화를 지켜보고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한 시간에 전화로 봉사에 참여하
 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봉사자 정기모임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향기가 묻어나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
 님의 따뜻한 마음과 향기로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 생겨나는 소소한 이야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가족
 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 자연을 아끼면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나만의 비결이나 수행과 신형 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느꼈던 내
 마음 안의 깊은 충만함이나 내면의 깊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
 내주세요. 원고 채택 시에는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보 낼 곳

• 주 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새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daum.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료민영화는 재앙이다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병원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 판매 등 수익 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으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성립을 허용해 주고 병원의 경영이윤을 확대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병원들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했기 때문에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영리병원과는 상관없다고 강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병원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자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회사를 보고 투자한다. 그런데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투자자의 투자금은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을 배분하는데 엄격히 분리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병원의 부대사업도 그렇다. 병원이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병원의 부대사업이란 ‘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고유 업무인 치료는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대사업이 허용되면 앞으로 병원은 의료를 비롯한 환자들의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 판매업, 관광호텔,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은 물론 부동산 임대업까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경영이 어려운 지역대학을 정부가 인수해 의사를 대거 양성,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에 보건소를 지어 농어민들에게 의료복지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진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국가가 임금을 주고 돈이 없어 치료조차 못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건설이 아닐까 하고…….

대책 없는 순진함이란 망상일 뿐이다. 자본의 논리, 자본주의 속성으로 보면 그런 소리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일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재산보다도 100만 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체 게바라의 이상을 실천하는 쿠바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미국처럼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영화 식코에서 보듯이 감기 치료 10만원, 맹장 수술비 1,000만원이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된 나라도 있다.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의료 천국 쿠바를 가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복지국가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

고 2차 세계대전 후 추진하던 사회복지정책은 마거릿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제도는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무료공립병원은 유지되었지만 의사와 간호가 부족해 진료를 받으려면 16주나 기다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1990년 후반에는 입원 대기 환자가 130만 명에 이르고 입원 환자 수술이 늦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위기를 의식한 토니 블레어 정권이 의료비를 5년 안에 1.5배로 증액하고 의대정원을 3,972명에서 6,326명으로 늘리는 등 간호사와 의사 증원정책을 추진했지만 백약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긴 '건강 달성도 종합평가'에서 일본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으뜸이라는 일본의 복지의료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민영화 결과 어떻게 됐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맹장 수술을 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72만원~216만원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맹장 수술을 하는

데 244만 엔, 우리 돈으로 3,200만 원이나 든다.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20%인 4,400만 명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있다.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손가락 두 개가 잘린 한 노동자가 보험에 들지 못해 손가락 한 개만 봉합하는 옷지 못한 얘기가 나온다.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 명이나 된다.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산업화 국가다. 의료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은 900만 명 이상이 된다.

1만 8000명의 사람들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40% 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1/3 이상의 비보험 환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비용 때문에 권장 치료나 처방약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비해 쿠바나 유럽 선진국들은

어떨까? 쿠바를 일컬어 의료천국이라고 한다. 1985년부터 '패밀리 닥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쿠바는 '콘솔토리오'라는 자택겸 지구의원에서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약 120가구를 돌본다. 의사가 특권계급이 아니다. 쿠바의사들의 봉급은 334페소 정도다. 전문자격을 딴 의사라도 최고 800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만 원 정도다. 쿠바사람들은 병이 들어 어쩔 수 없어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을 실천한다. 편식을 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충고해 주기도 하고 의사들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1차 진료'를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 성인의 포괄적인 케어 프로그램과 환경케어 프로그램, 서비스 최적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쿠바는 자기 나라를 못살게 구는 미국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무상치료에 인색하지 않다. 의료의 공공성... 아픈 사람은 치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쿠바의 의료복지 체제는 예방의료, 대체의료, 의

료외교, 복지제도면에서 가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천국이다.

의료 민영화는 재앙이다. 지금도 진료선택제니 과잉진료로 우리나라 병원들은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 배분을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 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을 추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외국자본과 악덕 재벌만 살찌우는 의료 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여름을 두 권의 시집과 함께

-백석 시집, 그리고 이성복의 <뿔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글 • 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맑고 향기롭게> 8월호가 나올 즈음이면 일찍 여름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은 벌써 여름휴가를 다녀오신 뒤겠지요. 해마다 여름은 늘 너무 무덥고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년 처음인 듯 여름 안에서 헉헉거리고 이 더위가 빨리 지나가 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바다 너머로 여행을 떠나지만, 여름이야말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휴가가 끼어 있어 서일까요, 아니면 더위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냥 집에 꼭 박혀 책이나 읽자는 심산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계절이면 어

떤 책을 읽을지도 고민입니다. 늘 책을 옆에 끼고 사는 이가 아니라면 그냥 베스트셀러 중의 한 권을 고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권의 시집을 추천합니다. 책을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더워서 긴 글을 읽기 힘든 분들이라면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시들을 옆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면 어떨까요? 굳이 줄거리를 따라서 앞에서부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 읽어도 좋습니다. 시 한 편 읽고 그 시가 만든 마음속 파장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은 시를 읽는 즐거움입니다. 시를 읽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시를 읽고 난 뒤 번지는 마음을 지켜보는 일이야말로

로 우리의 시선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시는 빠르게 읽어 제쳐야 할 속제가 아닙니다. 삶과 사회의 숨겨진 의미를 날카롭게 포착해 응축한 언어인 시는 오래 우려내야 할 언어이고 오래 곱씹어야 할 언어입니다. 산문이나 소설처럼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시는 어느 한순간을 스냅사진처럼 포착해내거나 말과 말 사이를 성큼성큼 건너뛰면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그 공백을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게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무더진 감성을 깨우치는데도 시를 읽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시도 많고 좋은 시인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울여름은 백석 시인과 이성복 시인을 가까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1912년 7월 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 시절에 활동하다 북에서 생을 마친 백석 시인은 우리말로 시를 쓴 이들 가운데 가

장 섬세하고 다감한 언어로 풍부한 감성을 동원하는 시를 쓴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문학청년들이 그의 시를 읽고 그의 시를 흉내 내며 그의 시를 뛰어넘고자 합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였음에도 그의 시에는 당시 그의 고향에서 썼음직한 말들이 넘쳐나고 그의 고향 사람들이 정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 듯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면 한없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령 <고향>이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고향

나는 북관에 혼자 앉어누워서
어니 아츰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
을 틀어워서
먼적 어니 나라 신선같은데
새끼손톱 길게도는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집드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곶이라 한즉

그렇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그렇면 아무개씨-ㄹ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우습을 띄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웃이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
 었다

이 얼마나 푸근한 풍경인가요. 백석의 시집에 담겨있는 <귀농>, <국수>, <흰 바람벽이 있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같은 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백석의 시에는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고, 그 시선만큼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한국 서정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성복은 한국 서정시의 역사와 전통에 반기를 든 시인입니다. 그는 그저 아름다움에만 골몰하는 한국 시의 기풍에 브레이크를 걸

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시집 『똥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는 바로 그 자신 만만하고 고통스러운 도전장입니다. 시집이 나온 지 34년이나 되었지만, 시집에 담겨 있는 시들은 여전히 펄펄 살아 있을 만큼 젊습니다.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권위와 허위로 가득 찬 세상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하고 싫은 것을 싫다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 같은 권위에 주먹을 날리며 현실의 무기력과 패배에 몸부림칩니다. 그는 익숙한 전통시의 어법으로 표현하기를 거부했고 자유로운 연상과 이미지로 표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1980년대 이후 한국시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날>이라는 시를 함께 읽어볼까요? 이 시로부터 시작해서 『남해금산』 등의 시집으로 이어지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대 한국시의 정점이 된 그의 아름다운 시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집들을 천천히 읽는 사이 여름도 훌쩍 지나가 있을 겁니다.

그 날

그날 아버지는 일곱시 기차를 타고 금촌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아홉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통통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사로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前方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驛前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未收金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愛人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츠 신은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태연한 나무들 위로 날아 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숨어내는 것을, 집 허무는 새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삼 치는 노인과 傳通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市內 술집과 여관은 여전히 불벗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한강의 밤 그 길은
 낮고, 길어가는 길



종이장수의 깨달음

〈해남·진불암〉

글 • 최정희(불교 언론인)

조선조 중엽. 지금의 해남 대흥사 산내 암자인 진불암에는 7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선 정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조실 스님께서 동안거 결 제법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종이 장수가 종이를 팔려고 절에 왔다.

대중 스님들이 모두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으므로 종이장수 최씨는 누구한테도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해서 최씨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맨 뒤쪽에 앉아 법문을 다 들은 최씨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중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이며 법당 안의 장엄한 분위기가 최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도 출가하여 스님이 될 수 있으

면 오죽 좋을까.」

내심 행각에 잠겼던 최씨는 결심을 한 듯 법회가 끝나자 용기를 내어 조실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떠돌아다니며 종이를 파는 최창호라 하옵니. 오늘 이곳에 들렀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현듯 저도 입산수도하고픈 생각이 들어 스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조실 스님은 최 씨를 바라만 볼 뿐 말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지. 종이 장수주제에 종이나 팔면서 살 것이지 스님은 무슨 스님. 불쑥 찾아든 내가 잘못이지.」

가슴을 조이며 조실 스님의 답을 기다리던 최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서려 했다. 이때였다.

「계 앉거라. 간밤 꿈에 부처님께서 큰 발우 하나를 내게 주셨는데 자네가 오려고 그랬구나. 지금은 비록 종이 장수지만 자네는 전생부터 불연이 지중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큰 도를 이루도록 해라.」

최 씨를 법기라고 생각한 조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아 주었다.

최행자는 그날부터 물을 길고 나무를 하는 등 후원 일을 거들면서 열불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후원 일과는 달리 열불은 통 외우지를 못했다.

외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외워도 그때뿐이었다. 대중들은 그를 「바보」라고 수군대며 놀려댔다. 최행자는 꼭 참고 노력에 노력을 해봤으나 허사였다. 입산한 지 반년이 지났으나 그는 천수경도 못 외웠고, 수계도 못 받았다.

그는 자신의 우둔함을 타하면서 그만 하산하기로 결심하고 조실스님께 인사드리려고 찾아갔다.

「스님, 저는 아무래도 절집과 인연

이 없나 봅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열불 한 줄 외우지를 못하니 다시 마을로 내려가 종이 장사나 하겠습니다.」

최행자의 심각한 이야기를 다 들은 조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심려치 말고 공부를 계속해거라.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너 같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조실 스님은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을 찾아가 수행하던 「판타카」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최행자를 위로했다.

형과 함께 출가한 판타카는 아무리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셔도 기억하질 못했다. 마침내 그는 대중 스님들로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받게 됐다. 판타카는 울면서 부처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판타카야, 내 말을 기억하거나 외우는 일은 그렇게 소중한 일이 못된다. 오늘부터 너는 절 뜰을 말끔히 쓸

고 대중 스님들이 탁발에서 돌아오면 발을 깨끗이 닦아 주거라. 이처럼 매일 쓸고 닦으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은 판타카에게 「쓸고 닦으라」고 알려주셨다. 판타카는 그날부터 정사의 뜰을 쓸고 스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판타카가 잇고 있으면 대중 스님들은 대야에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거만스럽고 비방거리는 말투로 「쓸고 닦으라」면서 더러운 발을 내밀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아침, 판타카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땅바닥에 휩 내던지면서 크게 소리쳤다.

「알았다, 알았어.」

그는 펄 듯이 기뻐하며 단숨에 부처님 앞에 나아갔다.

「부처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뭘 알았던 말이냐?」

「부처님께서 제게 쓸고 닦으라신 말씀은 매일같이 저의 업장을 쓸고 마음을 닦으라는 뜻이었지요.」

「오! 판타카야, 참으로 장하구나.」

부처님은 그 길로 큰 북을 울리

셨다.

대중이 한자리에 모아 부처님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였다.

「판타카는 깨달았다. 판타카는 깨달았다.」

조실 스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최행자는 「판타카」와 같은 수행인이 되기로 마음을 다졌다. 그는 후원 일을 도맡아 하면서 외우지는 못할 망정 《천수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실 스님이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밖에서 환한 방광이 일고 있었다.

조실 스님은 감격스러웠다.

최행자는 곤하게 잠들어 있는데 그가 읽던 《천수경》에서 경이로운 빛이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날 또 이번이 일어났다. 그 다음날 또 이번이 일어났다.

글 한줄 못 외우던 최행자가 천수경 뿐 아니라 무슨 경이든 한 번만 보면 줄줄 외워 나갔다.

이 스님이 후일 대흥사 13대 국사의 한 분인 범해 각안 스님이다. 유명한 저서로 《동사열전》이 있다.

조실 스님은 선대 스님들로부터 들어온 「진불암」 창건 유래를 생각하며 또 한 분의 진불이 출현했다고 생각했다.

진불암을 처음 창건하게 된 동기는 옛날 남인도에서 불상과 16나한 상 그리고 《금강경》과 《법화경》등을 모시고 온 배가 전라도 강진 땅 백도방에 도착한 데서 비롯됐다.

영조 스님 일행이 명당지를 찾아 인도 부처님을 봉안하던 날 밤, 스님은 꿈에 한 노인으로부터 「이곳은 후세에 진불이 출현할 가람이니라는 계시를 받고 절 이름을 진불암이라 명명했다.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총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013-787950(맑고 향기롭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모임에서도 동전 모금통을 배포하고 있으며, 모여진 동전은 지역모임으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지역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월곡 청소년센터 방과후교실 초등학생 및 성북구관내 방과후교실 아동들과 함께 연천 나룻배마을 농촌&자연체험하고 왔어요.

본모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월곡청소년 센터 공부방 아동을 비롯하여 성북구 관내 지역아동들과 여름방학 활동으로 연천 나룻배마을 농촌&자연체험을 7월 29일 진행하고 왔습니다.

도심에서 태어나 자라난 아동들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연천군의 농촌마을인 나룻배마을 강가에서 생태활동 및 농촌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전통 문화를 접하면서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청소년기에 공부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배우는 기회를 가져보았습니다.

8월 녹색나눔장터 안내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 및 회원들과 길상사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 금강경 독송회에서 참여하는 우리 농산물로 펼쳐지는 '맑고 향기롭게 2014 녹색나눔장터'가 10월 까지 길상사 경내에서 진행됩니다. 8월 장터는 10일(하안가해제일)에 진행합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줄 봉사와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를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발송 우편작업(1일/금)/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31일/일)/오전 11시~12시/설법전/황창연 신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밀반찬 조리 자원활동/목, 금요일(1,14,21,22,28,29일)/김치(7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미이 물어도 관참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4,11,18,25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10,17일)/오전 9시 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3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명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10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넷째 화요일(26일)/오후 1시 30분/시달타실
- 아름다운 마무리 캠페인(8월15일(일), 8월 31일(일)/길상사 경내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6,13,20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세계일화실, 비누는 여름철 참가 인원 이 줄어 8월은 일정 없음/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5,12,19,26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 녹색나눔장터(8월 10일(일)/길상사 경내
- 월곡청소년 센터 옥상텃밭 가꾸기 활동(6, 20일/수)
- 마켓 공부방 아동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8일/금)/세계일화실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자혜원(고아원)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자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 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른신 밑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른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 치료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 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인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주 금요일/09:30~12:00
 - 매월 셋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상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목요일-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주 수요일 부산진구 독거노인 밑반찬봉사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1,2,3주 토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지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밤느낌 노래,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8월부터 진행 예정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자비도량참법 기도

- 일시 : 8월 1일(금)~8월 9일(토) / 오후 2시
- 장소 : 지장전
- 동참금 : 무료

칠석기도

- 일시 : 8월 2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만원

다라니기도

- 일시 : 8월 2일(토) 오후 8시~10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무료
- 염송다라니 : 신묘장구대다라니

2015년도 대입수능 100일 기도

- 일시 : 8월 6일(수)~11월 13일(목)
- 시간 : 오후 2시~4시
- 장소 : 극락전

[입재 : 8월 6일(수) 9시 50분]

[회향 : 11월 13일(목)]

추계관음기도

- 일시 : 8월 11일(월)~11월 5일(수)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

여름 선 수련회

[3차 성인]

- 일시 : 8월 4일(월)~8월 7일(목)
- 참가비 : 15만원

[4차 청소년]

- 일시 : 8월 8일(금)~8월 10일(일)
- 참가비 : 8만원

[5차 성인]

- 일시 : 8월 11일(월)~8월 14일(목)
- 참가비 : 15만원

백중90일 아미타기도

- 일시 : 5월 13일(화) ~ 8월 10일(일)
- 시간 :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6재] 8월 3일(일)

[백중7재] 8월 10일(일)

불교문화강좌 휴강 일정 안내

2014년 여름 선수련회 일정 관계로 7월26일 ~ 8월15일까지 임시 휴강 합니다.
이용하시는 요일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민선방 철야정진과 삼천배 철야정진이 8월에는 여름 선 수련회 관계로 휴회됨을 알려드립니다.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9월 6일	오후 8시	극락전
추석합동차례	9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9월 13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9월 13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9월 1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천일기도 회향	9월 1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9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9월 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침묵의집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리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함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황창연 신부 초청
‘행복특강·노인이 웃는 세상’

시민모임「맑고 향기롭게」는 8월 31일 오전 11시 설법전에서 평창 생태 마을 관장 황창연(베네딕도) 신부님을 초청하여 ‘노인이 웃는 세상’이란 주제로 행복특강을 진행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며, 경제가 압축적으로 발전한 나라일 수록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본모임에서도 지난해부터 노인자살예방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 확산과 저비용&효율적 대비를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KBS 아침마당에서 행복특강을 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황창연 신부님의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에 가족이 함께 오셔서 삶의 지혜와 행복의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상사「부탄·카트만두 성지순례」안내

부처님이 평생 걸으신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느끼고 또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불자로서 또한 불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영광이자 평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길상사에서는 성지마다 부처님의 숨결과 숭고한 가르침이 깃든 불교 왕국 부탄과 카트만두로 순례를 떠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순례 기간 : 11월 17일(월) ~ 11월 25일(화) / 7박 9일

• 동참금 : 370만 원

(길상사 홈페이지 참조 및 종무실 방문 문의)

